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과 종교영역의 재편상* **

우 혜 란***

- I. 서언
- II. 마음치유 사업의 현황과 선행연구
- III. 마음치유 사업의 사회적 배경과 제 요인
- IV. 마음치유 사업의 영향과 결과
- V. 결어

I. 서언

한국사회에는 ‘웰빙’을 지나 ‘힐링’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코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업 시장에서 경쟁에 내몰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유, 공감, 위로에 대한 욕구가 표면화되면서 촉발된 면이 있으나, ‘힐링’은 어느덧 한국사회의 주된 문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힐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힐링 마케팅’, ‘힐링 산업’, ‘마음 산업’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힐링’과 관련된 영역 또한 빠르게 상업화, 자본화되고 있다. 즉 ‘힐링’ 관련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힐링 산업’이 하나의 새로운

* 이 논문은 2019년 7월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된 교수불자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대폭 보완·수정한 것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704)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산업 분야로 정착하면서, ‘힐링’은 소비재가 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 - 출판, 관광, 휴양, 외식, 미용, 부동산, (대중)문화 등 -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힐링 현상’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힐링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현재까지도 템플스테이는 ‘문화관광상품’으로 그리고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힐링 멘토’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련의 스님들 - 혜민, 법륜, 마가, 정목 등 - 의 저술이나 강연 활동이 한국사회의 ‘힐링 열풍’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힐링 열풍’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의 다른 전통종교와 달리 불교가 ‘마음치유’를 위해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과 같이 서구에서 불교 명상을 기반으로 개발한 심리치료요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불교 명상기법에 심리치료요법이나 상담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면서 ‘마음 산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태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광범위한 적용, 관련 인력의 양성과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 연구소, 학회 등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전통종교이며 주류종교인 한국불교가 ‘마음치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타 문화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으로 동시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서 ‘마음치유’에 집중하고 있는 현황을 기술하고, 이어서 종교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불교가 ‘마음치유’ 사업 내지 ‘마음 산업’에 집중하게 된 종교 내·외적 요인을 정리하고, 이와 동시에 ‘마음치유’를 중

1) 예를 들어, 힐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서울시, 대한요가회 등이 후원하는 (사)힐링산업협회 주체 ‘힐링페어’가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2019년 4월 4-7일 열린 ‘힐링페어’에는 380개 부스에 250여 개 기업, 지자체(기관) 등이 참가하였으며, ‘힐링’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요가, 명상 등의 4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불교 단체로는 (사)자비명상이 참여하였다. (『대세가 된 ‘힐링’ 열풍... “불교가 이끌어야”』, 『BBS뉴스』, 2019.4.5.)

요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불교계의 내적·외적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계종단과 같은 거대 종교조직이 현대과학의 결과물인 심리학의 활동영역인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종교 고유영역의 재편성 또는 확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마음치유 사업의 현황과 선행연구

한국 불교계는 한국사회의 '힐링 열풍'과 '마음치유'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저변과 영향력 확장을 위해 불교 사상이나 수행법(명상)을 접목한 서구의 대안적 심리치료나 상담기법을 역수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의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유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대표적 불교 종단인 조계종은 선두에 서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 심리학에서는 불교 명상과의 접목이 꾸준히 시도되었고, 그 결과물인 대안적 심리치료요법이나 상담기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주체 또한 심리학자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심리치료사/상담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담)심리학계 못지않게 제도종교인 불교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안적 기법들을 자신들의 '마음치유' 사업에 수용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마음치유 사업의 현황

조계종은 다른 종단과 비교해서 마음치유 사업의 규모나 범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조계종은 '마음치유'라는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제도나 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장해왔으며, 그 결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 필요 인력의 양성과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 연구소, 학회, 단체 등이 설립되었다.

① 전문교육기관: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대학·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명상심리상담학과),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마음치유사 과정),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불교상담학과, 명상학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불교상담심리전공),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명상심리학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대원불교문화대학·대학원(불교심리상담학과) 등.

② 연구소 및 학회/협회: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국제선치료연구소(International Zen Therapy Institute) 한국지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구 한국명상치료학회),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명상지도자협회(구 불교명상지도자협회), (사)한국마음치유협회 등.

③ 국가기관 등록 민간자격증: 중단 관련 기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으로는 포교원의 불교상담심리사와 마인드 케어(mind care) 지도사,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등이 있다. 그 밖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불교상담학회 등이 불교상담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과 (주)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에서는 명상심리상담사, 봉인사에서는 가피(명상)정신건강안내사를,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명상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MBSR연구소에서는 MBSR(국제인증)지도자를 단계별로 교육·인증하고 있다. 특히 마가 스님이 대표로 있는 (사)자비명상은 보다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명상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인드힐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사, 방과후학교 명상지도사, 차명상지도사, (청소년)인성교육지도사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격증 명칭만큼이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마음치유 관련 프로그램 또한 매우 폭이 넓다. 여기서는 2015년도에 발족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주된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해당 협회는 명상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외에 명상지도자를 양성하고 인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협회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된 회원단체는 총 20개로 금강선원, 동사십 행복마을, (사)자비명상, 장애통찰명상원, 불교상담개발원,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행복수업, 성철선사상연구원, 마하위빠사나명상원, 한국MBSR연구소 등이 들어있다. 이들 단체의 규모와 역사는 상이하나, 대부분 자신의 개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요법을 결합한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동사십과 자비명상을 들 수 있다; ② 서구에서 (역)수입된 불교 명상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기법으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MSC(Mindful Self-compassion: 마음챙김-자기연민), 선치료(Zen Therapy) 등이 있다; ③ 불교 명상의 전통적 형태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남방불교의 위빠사나(vipassanā) 명상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봉은사 마인드힐링 템플스테이’나 ‘직지인심 명상강좌’처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템플스테이가 증가하면서,²⁾ 한국 사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마음치유’는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헤민 스님이 설립한 ‘마음치유학교’(2015)³⁾가 조계사와 같은 대형 사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신들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해당 사찰의 신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마음치유학교’는 넓은 스펙트럼의 힐링 프로그램 - 합창 치유, 춤 치유, 요가 테라피, 집단상담, 마음챙김 명상, 긍정심리 훈련, 어린 시절의 상처치유 프로그램, 분노관리 프로그램, 집중명상 프로그램, 무의식 탐색과 치유, 심리검사, 최면,

2) 봉은사는 2016년 9월부터 헤민 스님과 함께 ‘봉은사 마인드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5월 해당 사찰이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학교와 MOU 체결을 통해 ‘자비의 대화법’, ‘마음챙김 명상’, ‘미술치유’, ‘춤 치유’ 등 4가지 테마로 각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봉은사, 헤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인드힐링 템플스테이』, 『주간불교』, 2016.8.9.) 한편 직지사는 2019년 2월 마가 스님의 (사)자비명상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직지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수 강사 활용 및 소양 교육, 홍보 확대 등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직지사, 자비명상과 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불교신문』, 2019.2.26.)

젠링요가 등 - 을 구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이러한 형태의 ‘힐링 쇼핑몰’은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마음치유 학교’는 - 템플스테이와 같이 - 불자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불교적(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 대중이 불교계가 제공하는 ‘마음치유’나 ‘힐링’을 소비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즉 해민, 법륜, 마가, 정목 스님과 같은 소위 ‘힐링 멘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연, 서적 등을 소비하는 수동적 형태와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가 있다. 후자는 다시 그 교육 대상에 따라 개인과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 연수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들 수 있다.

2. 선행연구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은 종단의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며, 이는 종단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 마음치유 사업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관련 연구도 불교학을 넘어 철학, 심리학, 교육학, 한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중·후반부터 불교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결과물도 상당량 축적되어있다. 이는 조계종단이 ‘마음치유’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0년부터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 적용,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 연구소, 학회 등을 설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분석은 본 논문의 제한된 지면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이들 연구의 주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명상치유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심리치유나 상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교학자나 심리학 전공 불교학자들이 주도하면서 이들의 내부자적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연구물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연구물은 불교를 접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무비판적 수용, 특정 불교사상이나 불교 수행법이 내재한 치유적 성격에 대한 원론적 논의, 그리고 개별 치유프로그램의 분석 - 해당 프로그램과 불교와의 연관관계, 특정 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과 효과, 프로그램 간의 비교 등 - 에 상당부분 치중되어 있다. 특히 이들 선행연구에서 서구사회에서 널리 적용되고 그 효과가 입증된 마음챙김 명상과 관련 치료요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대중화하려는 한국 불교계의 의도와 궤를 같이한다.³⁾ 이와는 달리 소수의 학자가 문화비판적 시각에서 한국불교의 '마음치유' 현상에 접근한 바 있으나, 주로 신자유주의를 단일 배경으로 해당 현상을 규범적(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⁴⁾

다시 말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치유프로그램의 분석이나 불교 사상/수행법의 치유적 성격/효과를 다루는 미시적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동시대 치유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거시적 담론 또한 현 불교계의 '마음치유'를 둘러싼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한국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치유 사업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타 문화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교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이나 요인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그러나 마음치유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연구자가 주도하고 있는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현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찰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3) 참고, 박성현, 「명상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명상치유학회지』 1/1 (한국명상치유학회, 2010), 133-138; 이필원·박성식, 「명상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 논문 경향 분석」, 『한국선학』 35 (한국선학회, 2013), 117-143; 김재성, 「불교명상의 심리치료에의 응용에 대한 연구: 최근 심리치료와 전통적 불교명상에서 마음챙김의 위상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37 (불교연구회, 2012), 171-230; 양영필, 「국내 마음챙김 명상의 임상논문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 김수미, 「한국 치유 문화 작동의 정치학- 신자유주의 통치 시기 주체 구성에 대한 일고찰」, 『언론과 사회』 22/1 (언론과사회사, 2014), 114-161; 류한소, 「신자유주의적 위로, 치유문화」, 『문화과학』 69 (문화과학사, 2012), 206-213.

Ⅲ. 마음치유 사업의 사회적 배경과 제 요인

한국에서 관찰되는 종교(불교)와 심리학/심리치료요법의 결합은 어쩌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일련의 종교(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이미 동시대 종교문화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마조노 스스무(島離激)는 일본 사회의 (비제도화된) 신영성운동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심리치료 운동과 종교적 치유 운동이 결합한 ‘심리-종교 복합운동’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는 무엇보다 과학적 제도와 사고가 지배적인 도시화한 현대사회에서 “종교(구원)에서 심리요법(치유)으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

이러한 동시대의 중요한 종교문화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와 같이 전통 종교이며 주류종교가 주체가 되어 마음치유에 소위 ‘세속적인’ 현대과학의 산물인 심리학의 최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현상은 타 문화권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서구에서 심리학과 불교적 요소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그 결과물인 대안적 상담/심리치료 기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심리학자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심리치료사/상담사라면, 한국에서는 제도종교인 불교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안적 기법들을 자신들의 ‘마음치유’ 사업에 수용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대표적 불교종단인 조계종은 선두에서 있으며, 선종(禪宗)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간화선(看話禪) 또한 ‘명상의 대중화’나 ‘현대적 포교’라는 당위성이 부여되면서 심리치료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타진되고 있다.⁶⁾

5) Susumu Shimazono, “From salvation to healing: Yoshimoto Naikan therapy and its religious origin,” Harding, Christopher et. al., eds. *Religion and Psychotherapy in Modern Japan*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2015), 152.

6) 참고, 박성현 외, 「간화선 수행 체험의 심리학적 분석 : 안국선원 간화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1 (한국종교학회, 2013), 235-266; 송영숙, 「심리치유적 관점에서 간화선의 응용모델 : 육도의 핵심감정 치유기제로서의 ‘화두’의 응용」, 『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2013), 417-453; 이필원, 「간화선과 심리치료 -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44 (인도철학회, 2015), 191-221.

서구의 경우 매우 소수의 신종교나 교회공동체에서 심리치료요법의 활용이 보고되고 있다. 오히려 서구에서 동양 종교의 사상이나 명상기법을 (유사과학적) 심리치료요법과 융합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뉴에이지(New Age)’라고 불리는 비제도화된 종교영역에 포진한 명상/수련 단체들로,⁷⁾ 이들은 자기성장, 자기완성, 의식확장 등을 약속하며 고객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마음수련’(1996~)과 ‘동사섭’(1982~)이 대표적인 명상단체이며, 미국에서 들어온 ‘아바타 코스(Avatar course)’도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불교국가인 일본의 경우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심리치료기법으로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영향을 받은 ‘내관’(內觀)과 선(禪)의 요소를 통합한 ‘모리타 기법’이 오래전에 정착하였으나, 이들 기법은 특정 종교(불교)를 대변하지 않는 개인들이 개발한 것이다. 물론 소수의 일본 신종교가 자신들의 교리와 심리치료요법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소위 ‘영적 치유사’들이 개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서구에서 수입된 심리치유요법이나 자기완성 프로그램들을 전파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들을 일본의 주류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⁸⁾

따라서 한국의 전통종교이며 주류종교인 불교가 마음치유라는 새로운 과제를

7) ‘뉴에이지’는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이라고도 불리며, ‘신영성(New Spirituality)’ 또는 ‘신영성운동(New Spiritual Movement)’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뉴에이지가 기성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 신앙공동체를 결여하고 있으며, 신자 대신 (뉴에이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나 회원을 두며, 위계적 권위체계 대신 수평적이고 느슨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직적인 선교 대신 네트워킹(networking)이나 홍보를 통해 (잠재적) 고객/회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확산은 현대사회에서 제도종교의 권위가 약화하였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뉴에이지 시장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험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종교적 욕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Hai-Ran Woo, “New Age in South Korea,” *Journal of Alternative Spiritualities and New Age Studies* 5, 2009, 4-5.)

8) Kondo Kyoichi, and Kitanishi Kenji, “The mind and healing in Morita therapy,” Harding, C. et. al., eds. *Religion and Psychotherapy in Modern Japan*,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2015), 103-104; Shimazono, 153ff; Ioanni Gaitanidis, “At the forefront of a ‘spiritual business’: independent professional spiritual therapists in Japan,” *Japan Forum* 23(2), 2011, 192-193.

위해 서구에서 개발된 불교 명상과 (상담)심리학을 접목한 상담/심리치료 요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의 명상/수행 전통에 토대를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려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제도종교인 한국불교가 마음치유 사업을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 직간접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종단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한국불교가 ‘마음 산업’에 참여하게 된 불교의 내·외적 계 동인(動因)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1.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와 ‘힐링’ 산업의 저변 확대

한국사회는 IMF 외환위기를 지나 2000년대 초·중반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웰빙’이 화두로 떠오르고 중산층 위주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본 의식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높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유지되고,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계가 가져온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불안한 일자리와 높은 경쟁에 시달리게 되면서 심신의 치유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증가하여 2010년 무렵 ‘힐링’이 하나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 트렌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되면서 급속히 산업화/상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힐링 산업은 2015년경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연관 산업 또한 - 심리치료, 템플스테이, 힐링투어 등과 같이 - 의료, 문화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힐링 트렌드가 이미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정착하였고, 힐링 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신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17년에는 전 지구적으로 4.2조 달러(4,71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교해 한국힐링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18년 약 76조 원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신산업에

9) 「76조원 한국 힐링산업, 과제는?」, 『스트레이트뉴스』, 2018.11.10.; 이승철 외, 「힐링을 힐링하다 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897 (삼성경제연구소,

고무되어 관련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개설되고 있는데,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통합케어경영전문과정에 신설된 ‘헬스케어복지경영 힐링명상전공’(2016~),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과학산업학과의 ‘힐링명상산업 최고위 과정’(2017~) 등이 그것이다.¹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근래 들어 명상과 힐링을 기업 경영의 수단, 즉 임직원들의 교육/연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대규모 명상·힐링센터를 짓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대기업(대웅제약, 매일유업, 풀무원, 사조동아원)과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공동 설립한 ‘힐리언스 선마을’(2009~)을 시작으로 동화그룹은 ‘동화컬처빌리지’(2013~)를, 삼성전자는 ‘영덕연수원’(2017~)을, LG디스플레이는 ‘문경 힐링센터’(2017~)를 설립하였다. 대웅제약이 대주주로 투자한 힐리언스 선마을은 자신을 국내 최초의 힐링리조트로 소개하며 ‘기업힐링’ 워크샵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모듈형 프로그램과 특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자에는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워라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¹¹⁾ 동화컬처빌리지는 명상호흡과 집단상담 등을 진행하는 ‘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LG 문경 힐링센터는 ‘힐링’과 ‘소통’을 주제로 명상, 컬러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소통 스킬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삼성의 영덕연수원은 ‘힐링캠프’ 프로그램으로 칠보산 숲 명상, 가족 공감명상, 요가명상, 슬로우 워킹 등을 제공하고 있다.¹²⁾

2013), 1-2. 한국의 현 힐링 산업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주된 이유는 ‘힐링 산업’의 세부영역 분류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10)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최신 힐링명상 지도법/사용법과 함께 센터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마케팅, 실무 경영 전략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http://dailyt.co.kr/news/newsview.php?ncode=179517012380532&dt=m;>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4224>
- 11) 모듈형에서는 숲치유명상, 음악명상, 마인드컨트롤, (스트레스 해소) 호흡명상 등이, 워라벨 프로그램으로는 ‘recovering’ 운동법, ‘창조적 휴식’ 명상 등이 제공된다. ([https://www.healiency.co.kr/content/sub03/sub03_070107;](https://www.healiency.co.kr/content/sub03/sub03_070107) [https://www.healiency.co.kr/Content/sub03/sub03_070109,](https://www.healiency.co.kr/Content/sub03/sub03_070109) 검색일: 2020.3.15.).
- 12) 「삼성 인력개발원 영덕 연수원 힐링(Healing) 캠프, 칠보산 휴양림」, 2019.8.1.

대기업들이 앞다퉀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건강한 심리상태가 이들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에 직결되기에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명상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이유는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제품 사이클도 짧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³⁾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명상/치유프로그램의 목적은 임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조직을 위해 일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함이라 할 수 있다. 명상치유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요법이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흔히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즉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들 치유프로그램은 체험상품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심화시킨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추슬러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기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¹⁴⁾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3vNx&artid=16116267&bloghome_menu=recenttext 검색일: 2010.3.15.)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명상-힐링 센터를 설립하기 전부터 경영에서 임직원의 힐링 혹은 마음 건강이 갖는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사내에서 운영하여왔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내 라이프코칭센터를 두고 심리상담을 진행해오면서 임직원 건강검진에 스트레스 심리검사 항목을 포함했으며 전 직원들에게 명상교육을 하거나 ‘힐링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2017년 개원한 영덕연수원은 2013년부터 미래전략실 주도로 명상 자문위원단이 구성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연수원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은 삼성경제연구소 산하 삼성인력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사내에 명상실과 심리카페를 운영한 바가 있으며, ‘소통캠프’를 통해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전 사업장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해 상담과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왔다. SK텔레콤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인재개발원에서 마음빼기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SK는 KAIST의 명상과 학연구소(2018^{*}) 설립을 지원하였다. (『삼성에 부는 ‘힐링 바람’, 전 임직원에 ‘힐링가이드’ 배포, 『뉴스1』, 2013.2.16; 『삼성-LG 등 직원들 위한 명상과 힐링에 대규모 투자, 『불광미디어』, 2018.11.27.)

13) 『삼성, ‘IT와 명상’...3박4일 교육과정 운영, 『MK뉴스』, 2017.6.9.

14) 류한소, 『신자유주의적 위로, 치유문화』,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12), 209-210; 김은준, 『포스트힐링시대 한국사회 성찰적 자기개발담론의 가능성 모색: 2013~2017

이렇듯 명상이나 힐링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체와 단체들이 그 효과에 주목하게 되면서 힐링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불교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불교계는 기업의 ‘명상 경영’에 고무받아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찰이 이미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¹⁵⁾ 이밖에 2009년 개원한 한국문화연수원(구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원)은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일반 기업이나 단체 연수를 위한 전문교육시설로 특화되어 다양한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개원한 황룡원은 동국산업 장상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것으로 특정 기업(인)과 불교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황룡원은 동국산업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이자 일반 기업체나 사회단체의 교육 장소로 개방되어 있으며,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CEO명상코스, 생활명상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⁶⁾

2. 세계화로 인한 불교 명상의 다양화와 심리(치료)화

한국불교의 대중(大宗)이 된 선종(禪宗)은 명상수행의 전통을 강조하며, 그중에서도 간화선(看話禪)은 주류 수행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수행법 - 종헌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간화선이며, 염불이나 주력과 같은 이외의 수행법은 보조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가 오랫동안 간화선을 하나의 선택이 아닌 ‘정통’ 수행법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년 언론분야 학술지 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88-91.

15) 『기업명상 확산, 불교발전 ‘디딤돌’ 될까』, 『현대불교』, 2016.7.29.

16) 장상건 회장은 부친인 동국제강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고장경호 거사의 대중불교운동 정신을 잇고자 경주 보문단지에 황룡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며, 황룡사 구층목탑을 재현한 중도타워와 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유’를 추구하는 연수원, 황룡원」, 『철강금속신문』, 2019.8.26; 「경주의 새로운 신행명소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개원」, 『우리불교신문』, 2016.7.6.

여타 수행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¹⁷⁾ 그러나 서구에서 존경받는 망명 불교 지도자인 틱낫한(Thich Nhat Han)과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영어 저술이 1990년대 말부터 한국어로 출판되어 커다란 인기를 누리면서 상좌(테라바다) 불교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상응하여 수행법으로 상좌불교의 위빠사나(vipassana)와 티베트 명상이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위빠사나 수행공동체는 한국불교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¹⁸⁾

이들 타 불교권의 명상법이 한국사회에 비교적 쉽게 유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이 1980년대 이후 서구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세계성 혹은 보편성을 획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¹⁹⁾ 무엇보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행되면서부터 한국 불교계와 타 아시아 불교권과의 교류는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상당수의 한국 스님과 불자는 동남아로 상좌불교를 배우러 떠났고, 이들 일부는 귀국 후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열어 위빠사나와 같은 현지 명상법을 전파하였다. 위빠사나가 한국사회에서 불교 명상이 다양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하근기(下根機)의 일반 불자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간화선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될 뿐 아니라, 서구에서 심리치료기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마음챙김 명상(Mindful Meditation)’의 근간이 되면서 한국불교가 심리치료 또는 마음치유라는 명상의 새로운 역할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남방불교의 전통 명상방법인 위빠사나의 핵심개념인 ‘사띠(sati)’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 순간의 알아차림”을 의미하며, 팔정도(八正道)에서 정념(正念)에 해당한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 미국 행동의학자 카밧진(Jon Kabat-Zinn)이 개발한 - 심리

17) 윤원철,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과 그 현대적 의미』, 『동양철학연구』 23 (동양철학연구회, 2000), 68.

18) 안신정, 『불교 수행공동체의 변화』, 『불교와 사회』 10/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8), 90ff.

19) Ryan Bongseok Joo, “Countercurrents from the West: ‘Blue-Eyed’ Zen Masters, Vipassana Meditation, and Buddhist Psychotherapy in Contemporary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9(3), 2011, 621ff.

치료요법인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서구의 현대 심리학이 동양의 명상전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심리치료의 테크닉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불교 명상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상담과 심리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서구인의 폭발적 관심은 수많은 관련 강좌와 코스의 개설, 학교, 병원, 공공단체 등의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 활용, 관련 명상 애플리케이션의 증가 등에서도 확인된다.²⁰⁾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메트칼프(Franz Aubrey Metcalf)는 불교는 점점 심리화되고 심리학자는 불자가 되면서 불교가 서구(미국) 문화에 폭넓게 흡수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²¹⁾

2000년 이후 불교 명상에 기초한 서구의 심리치료/상담기법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상담/심리학계가 이를 먼저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곧 한국 불교계가 이러한 심리학계의 흐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명상과 심리/상담학을 접목한 새로운 학문 분야 - 불교상담학, 불교심리학, 명상심리상담학 등 - 를 수용하면서, 불교재단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대학원에도 전공 분야가 개설되었으며, 이와 함께 일련의 관련 연구소와 학회/협회도 설립되었다.²²⁾ 이러한 교육/연구 인프라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계가 마음치유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한편 한국의 심리/상담학계를 위시하여 불교계가 이러한 새로운 심리치료/학문 분야를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인 데에는 서구에서 (불교) 명상이 대체의학의 중요한 치료기법이자 심신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명상을 응용한 다양한 심리치료/상담기법이 이미 임상에 널리 적용되어 그 유효성이 상당 부분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심리화 혹은 심리(상담)치료의 기법으로 개발된 서구 불교는

20) Editor, “Forum: What Does Mindfulness Mean for Buddhism?,” *Lion’s Loar*, 2015:55.

21) Metcalf, Franz Aubrey, “The Encounter of Buddhism and Psychology,” Charles S. Prebish and Martin Baumann, eds. *Westward Dharma, Buddhism beyond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349, 356ff.

22) 인경, 「명상 붐과 불교계의 대응」, 『불교평론』 55 (불교평론사, 2013)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 Joo, 628-630.

동시대에 들어오면서 역으로 한국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아시아 불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²³⁾

이 밖에도 한국 불교계에 작지 않은 충격을 가져온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에 확산한 소위 ‘제3의 수행법’을 들 수 있다. 일부 불교 성직자와 재가 신자들이 이를 배우거나 전파하면서 한국 주류 불교계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일반적으로 ‘제3의 수행법’으로는 외국에서 유입된 아바타(Avatar) 코스, TM 초월명상, 과묵공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자생한 마음수련, 단학 등이 포함된다.²⁴⁾ 또한, 이 시기부터 출가 수행공동체도 아니고 사찰의 재가수행공동체도 아닌 ‘제3의 명상 수행공동체’가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티베트 전통의 명상수행 공동체로 스승이 오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느슨한 커뮤니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²⁵⁾ ‘제3의 수행법’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이 당시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미 타 문화권의 다양한 명상/수행법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었고, 위빠사나의 경우 불교 수행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타 불교권의 명상기법을 위시하여 - 심신치유나 자기완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유사과학적) 심리치료기법을 차용하고 있는 - 뉴에이지 계열의 명상프로그램들이 한국사회에 전파되고 대중적 호응을 얻는 상황은 한국 불교계가 새로운 ‘경쟁 상대’를 맞음으로써 ‘명상’을 새롭게 접근하는 - 즉 ‘명상’을 불교 대중화와 마음치유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 하나의

23) Metcalf, “The Encounter of Buddhism and Psychology,” 349.

24) 이호원, 「불교 제3수행법의 대두」, 『신종교연구』 6 (한국신종교학회, 2002), 229. 불교계에서 ‘제1의 수행법’은 북방불교의 간화선이나 목조선, 남방(상좌)불교의 위빠사나,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과 같은 소위 불교 ‘정통’ 수행법을 가리키며, ‘제2 수행법’은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타종교의 수행법을, ‘제3의 수행법’은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거나 전통과 진승이 확실하지 않은 주로 20세기에 창안된 수행법을 말한다 (앞의 글). 불교계가 이런 식으로 수행법을 위계적으로 분류하여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한국 개신교 단체의 이단 분류작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계 일부에서는 ‘제3의 수행법’은 부처님의 정도(正道)가 아니며 불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후 불교계에서 ‘제3의 수행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25) 안신정, 「불교 수행공동체의 변화」, 93ff.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명상/선(禪)의 대중화와 교육받은 중산층 불자군의 등장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이 명상에 기초한 치유를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명상이나 선의 대중화가 마음치유 사업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에서 선(禪)은 전통적으로 출가자의 수행법으로 일반 재가 신도에게 쉽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재가자를 위한 선원이나 선방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선의 대중화와 '생활 선'을 주창한 진제 스님이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하면서 1974년 시민선원의 시초인 재가자 안거를 위한 하선원을 개설하고, 더불어 토요일 철야정진을 위한 시민선방(현 토요일맹정진선원) 열면서이다.²⁶⁾ 그러나 도심이 선풍이 분 것은 1970년대 말 조계사가 정화회관 2층에 대중을 위해 선방을 마련하면서부터라고 하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후 재가 단체들이 그 맥을 이어받아 삼보법회와 포교사협회가 선 수행이나 강좌를 마련했으며, 1987년을 정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수선회가 당시 조계사 법당에서 선승초청 선법회(禪法會)를 열어 많은 대중을 모았다.²⁷⁾ 1990년대 이후 재가 선원이나 시민선방은 많이 대중화되어 선 수행이 더는 사찰에 국한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학원 선정회를 비롯해 전국 50여 사찰과 단체가 일반인을 위한 선방을 운영하였으며, 200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50여 시민선방 외에도 30여 시민선원에서 재가자들이 출퇴근을 병행한 안거수행에 동참하였다.²⁸⁾

도심선원, 시민선원, 시민선방 등이 선의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면,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중산층의 교육받은 재가 불자가 대거 등장하게 된 데에는 도심사찰이 개설한 불교교양대학의 역할이 절대

26) 해운정사 홈페이지에는 스님들은 위한 상선원(금모선원)이 1979년 개원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http://www.seon.or.kr/>, 검색일: 2020.1.20.).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아이콘」, 『현대불교』, 2015.3.15.; 「2001 제안 '수행합시다」, 『불교신문』, 2002.2.15.

27) 「도심속 자기성찰의 공간으로 각광받는 시민선방」, 『불교신문』, 1993.10.20.

28) 「시민선방①-도량의 꽃」, 『불교저널』, 2009.6.8.

적이다. 도심지 사찰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발전하였으며, 무엇보다 이들 사찰의 빠른 성장은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로 인한 것이었다.²⁹⁾ 1973년 (동국제강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가 설립한) 대원정사가 후암동에 개설한 ‘대원불교교양대학’은 불교종단이나 사찰의 차원에서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체계적 교육시설이라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는 도심 아파트 빌딩 숲에 포교당이 들어서고 불교교양대학이 개설되면서 소수 특정 집단을 위한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도시민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가 시도된 시기이다. 이어서 1980년대에는 도심사찰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찰이나 불교단체와 같은 개별단위 소속의 불교교양대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³⁰⁾

한편 신도교육은 도심사찰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불광사와 능인선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불광사는 1975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법회에서 금강경 강의가 열었는데 참가인원이 43명으로 시작하여 1년 뒤에는 48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재가자들의 교리공부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당시 적절한 신도교육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부재하였음을 반증한다. 도심 포교가 활성화된 1980년대 서울 강남에 터를 잡은 능인선원도 급성장하였으며 가장 큰 발전 요인으로 체계화된 신도교육을 꼽을 수 있다. 1986년 3월 개설한 ‘불교학교’ - 후에 ‘능인불교대학’으로 개칭 - 는 20년 동안 매해 학기별로 2~3천 명의 새로운 신도를 배출하여 총 12만여 명의 졸업생을 내놓으면서, 2000년대 중반 이미 25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게 되었다.³¹⁾ 이렇듯 도심사찰의 불교교양대학은 단지 기도와 불교 의식에 머물지

29) 김이슬, 『한국 불교의 재가신도 활동 연구-서울 도심사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논문, 2019, 20-21.

30) 윤영혜,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 대형 도심포교당의 등장과 성공 -』, 『불교연구』 26 (한국불교연구원, 2007), 179; 김이슬, 『한국 불교의 재가신도 활동 연구』, 41-42.

31) 조기룡, 『현대도심포교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 대형도심사찰의 성장을 중심으로 -』, 『한국선학』 14 (한국선학회, 2006), 256-258; 「25만 ‘인텔리 신도’ 거느린 능인선원의 비밀」, 『신동아』 2006년 12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5966/1>). 현재 능인불교대학은 각각 기초교리를 가르치는 수업 기간 4개월의 초급반, 불교신행, 금강경, 범구경을 가르치는 6개월의 중급반 그리고 불교신행, 금강경을 가르치는 6개월의 고급(법사)반의 3단계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능인선

않고 불교에 관한 지적 탐구에 목마르던 교육받은 중산층 도시민을 새로운 신도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중·대형 사찰이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는 한국 재가 신도의 교육과 의식 수준 또한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교육받은 중산층 재가불자들의 존재가 불교계 마음치유 사업의 필요조건인 것은 이들이 전반적으로 명상에 관심이 많고 마음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지적, 금전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상당수가 추가적인 전문 교육을 거쳐 마음치유 사업 현장에서 중간 지도자로 활동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4. 불교 인구의 감소와 불교계의 위기의식

한국 불교계는 2016년 말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한 항목인 종교 인구 집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그것은 최대 신자 수를 자랑하던 한국불교가 10년 전 10,588,000명에서 7.3%가 줄어든 7,619,000명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을 보탠 것은 개신교인은 10년 전보다 15% 증가해 9,676,000명으로 가장 큰 종교집단이 된 것이다. 즉 해당 조사에 의하면 불교 인구가 처음으로 한국사회에서 - 개신교에 이어 -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더 나아가 무종교인은 전체 56.1%로 종교인구보다 13%나 많은 데 반해, 종교인구는 21,55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로, 2005년 52.9%에 비해 10년 만에 무려 9% 약 300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분의 대부분이 불교 인구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종

원 포교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고, 합격하면 포교사 자격증과 함께 가정법회 지역팀장으로 임명된다고 한다 (능인선원 홈페이지, <http://nungin.net/>). 이 밖에도 능인선원 행정조직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불교대학 출신이라고 한다. 이렇듯 능인불교대학은 재가 신자가 중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예화되어 배출된 신도는 기수별로 잘 조직되어 능인선원의 발전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인이 주류를 구성하는 새로운 종교지형이 형성되었다.³²⁾

불교의 경우 신도 수의 감소와 함께 출가자의 수 또한 급감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등록된 행자(1,576명) 중 26%(410명)가 강압적 명령, 교육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중도 퇴사하였으며, 2016년 수계교육을 받은 행자 81명 중 84%에 달하는 67명이 퇴사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가자 감소 속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여행자(女行者)의 급감으로 이전에 여행자 대 남행자 비율이 대략 1:1을 유지하였다면, 2006년을 기점으로 1:2의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며, 최근에는 여성 출가자의 수 또한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³³⁾

이러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의 급감에 따른 한국 불교계의 위기의식이 불교계가 마음치유를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하나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한국 불교계가 마음치유와 상담을 현대적 포교방법으로, 그리고 성공적인 문화포교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한 포교 활성화와 불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불교계에서는 “전법교화(傳法教化)의 패러다임 전환”이 화자되며,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불교상담개발원은 “마음과학의 시대, 불교상담이 불교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교상담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³⁴⁾ 2014년 11월 포교원의 주최로 열린 불교 명상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전 사회적으로 정신적 치유를 위한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명상포교가 차세대 불교의 동력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³⁵⁾

따라서 마음치유와 상담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커다란 관심과 투자는 단순히 고동받는 중생의 구제를 넘어, 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32) 윤승용,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던지는 의미와 과제」, 『신대승 e-Magazine』 8 (신대승네트워크, 2017), webzine.newbuddha.org/article/153.

33) 「최근 5년간 행자 400명 ‘퇴사」, 『불교포커스』, 2016.6.2.

34)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상담대학원대학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 『법보신문』, 2014.6.10.

35) 「‘명상포교는 차세대 불교의 동력」, 조계종 포교원, 명상지도자 간담회, 『불교신문』, 2014.11.28.

수요가 담보되는 '힐링'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량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의 2014년 발언 - “불교상담은 머지않아 불교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며,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한국불교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할 것” -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³⁶⁾ 이런 맥락에서 마음치유라는 새로운 활동영역의 구축은 한국 불교계가 동시대의 변화하고 있는 내부적/외부적 상황 - 종교(불교) 인구의 감소, 현대인의 개인화된 종교성, 명상/힐링 산업의 발전 등 - 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IV. 마음치유 사업의 영향과 결과

앞 장에서는 한국 불교계가 마음치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과 요인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물론 마음치유 사업은 어느 특정 요인이 배타적으로 작동하였다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제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 불교종단인 조계종은 마음치유를 종단의 주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종단의 물적·재정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조계종과 같은 거대 종단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 현재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 조직의 권위구조, 신도들의 정체성이나 조직 헌신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로 인한 한국 종교지형도 전체의 변화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마음치유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6) 「불교상담, 불교 대표하는 브랜드 될 것」, 『불교신문』, 2014.2.7.

1. 새로운 지도자군의 등장과 전통적 권위체계의 약화

마음치유 사업의 추진과 함께 다수의 전문교육기관, 연구소, 학회/협회 등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명상치유 전문가가 배출되는 동시에 자격증 제도를 통해 이들이 관리되고 있음은 새로운 (재가신도) 지도자층이 불교조직 내에 생성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들 교육받은 명상(전문)지도자는 주로 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을 담당한다.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중간 지도자의 등장과 양적 증가는 불교 내부의 전통적 권위체계나 리더십 구조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20개 회원단체 중 5개 - 행복수업, 자애통찰명상원, 성철선사상연구원, 한국MBSR연구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 를 재가자가 이끌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에서 재가 신도/단체가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말한다. 무엇보다 명상(치유)지도자의 대다수가 재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종단과 사찰 내에서 더는 예전처럼 주변화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이 확장될수록 관련 조직에서 (중간) 지도자로서 재가 신도 특히 여성 불자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한국 불교계의 뿌리 깊은 출가자 그리고 남성 중심의 권위 질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

2. 불교의 정체성 약화

한국 불교계가 효과적인 마음치유와 상담을 위해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요법/상담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서구에서 역수입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려는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이다. 한국에서 다른 종교가 아닌 불교가 이러한 과감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가 다른 제도종교에 비해 교리나 신앙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사

회적 경계 또한 높지 않다는 점이 한몫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련의 종교학자는 불교를 ‘연성(軟性) 종교’로 분류한다. 최준식은 경직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경성(硬性) 종교’로, 느슨한 조직체계를 가진 불교는 ‘연성 종교’로 구분하였으며, 윤승용은 종교조직의 멤버십을 중시하는 개신교는 ‘경성 종교’로, 일반 문화에 스며드는 불교는 ‘연성 종교’로 분류한 바 있다.³⁷⁾

이러한 유연한 믿음공동체와 교리해석 덕분에 한국 불교계는 - 현대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 심리학과 심리치료/상담이라는 기존의 학문 영역과 전문직업 분야와 커다란 충돌 없이 마음치유 사업을 위해 내부 조직과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불교계가 자신의 명상사업을 종교(불교)의 영역을 넘어, 주변 사회로 확장하면서 (잠재적) 수요층을 넓히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이렇게 대사회적 경계를 낮추면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하여도, 바로 같은 이유로 강하게 결속된 신도층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불교계가 마음치유 사업을 대사회적으로 확장하면 할수록 종교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불교계가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들 또한 ‘통상적인’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요법으로 축소 혹은 환원되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결국 ‘힐링 시장’에서 타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그 운영 주체들과 오직 그 효율성이나 가성비(價性比: 가격 대비 성능)에 근거해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 없는 명상’ 즉 불교 명상프로그램의 희박한 불교적/종교적 정체성을 우려하며, 명상의 효용성이나 기능적인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명상의 근원, 즉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선을 둘 것을 제안한다.³⁸⁾ 그러나

37) 최준식, 「종교란 무엇인가 - 왜 인류에게 종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답」, 『불교평론』 18 (불교평론사, 2004),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Print.html?idxno=488>; 윤승용, 「한국인의 종교, 30년(1984-2014)을 마무리 하고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No. 353 (2015).

38) 「명상은 깨달음 길...개인 안락 몰두 경계해야」, 『법보신문』, 2017.7.24; 「명상, 보다 깊은 사유·사색으로 무아 발견해야」, 『법보신문』, 2019.7.2; 인경, 「명상포교의 역할과 종단의 과제」, 『불교평론』 59 (불교평론사, 2014) (<http://www.budreview.com/news/>

다른 한편에서는 명상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응용과 소비를 위해 최대한 종교색을 희석할 것을 주문한다. 오원철은 국내외 명상 붐을 잘 이용하여 지속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종교성이 최대한 배제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명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불교계에는 명상프로그램의 ‘불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시각이 동시에 묘하게 서로 얽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명상의 종교성 배제를 주장한 오원철의 경우에도 같은 글에서 “한국불교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명상 붐에 힘입어 불교의 고유성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간화선 전통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적고 있다.³⁹⁾ 따라서 불교 명상프로그램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현 한국 불교계의 논의는 상당 부분 자기모순적인 또는 자가당착적인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대 불교종단인 조계종이 현재 신행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면서 종단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음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16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1,500명을 가려 면접으로 진행된 ‘2014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불교도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에 비해 종교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 종교행사 참석도와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1.9%에 그침으로써 개신교 65.8%, 가톨릭 48.2%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불자 대다수(70.3%)는 1년에 1~6회 정도 - 주요 행사 때만 - 법회에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낮은 법회 참석과 비례하여 신행 활동도 또한 매우 저조하다. 평소에 (매우 열심히+열심히) 기도를 하는 불자는 12.3%로 개신교인(40.4%), 천주교인(28.0%)과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전 (매일이나 자주) 읽는 빈도도 개신교인(37.8%), 천주교인(29.3%), 불자(7.9%), 순서였다. 무엇보다 ‘명상’을 열심히 한다는 불자는 8.7%로 개신교인(27.6%)과 천주교인

articleView.html?idxno=1468).

39) 오원철, 「명상 붐의 국내외적 현황과 추이」, 『불교평론』 55 (불교평론사, 2013)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

(18.3%)에 비해 매우 낮았고, 명상을 하지 않는 편이거나 전혀 하지 않는 불자도 46.3%에 달해, 명상과 관련해 이웃 종교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⁴⁰⁾

수행 종교로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은 불교사회연구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표본 조사한 「2013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된다. 불자라고 응답한 25% 중 ‘실천 중인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은 30%이었으며, 수행법으로는 염불(21.3%), 호흡명상(21.3%), 경전 읽기(18.7%), 봉사과 기부(12%), 절 수행 (9.3%), 자애명상(5.3%), 간화선(4%), 알아차림(위빠사나) 수행(2.7%), 다라니(2.7%), 계율준수(1.3%) 차례였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쉬움’(58.7%), ‘이해와 실천이 쉬움’(20%)이 ‘큰 효과를 기대’(8%)를 크게 앞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계종단의 핵심 수행법이 간화선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불자만이 간화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전국 선원의 승려들도 절반 이상이 간화선을 하지 않고 호흡명상 등 다른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보도는 간화선이 얼마나 수행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⁴¹⁾ 이렇듯 한국불교는 신행의 차원에서 종단 정체성 확립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나, 타 불교권에서 다양한 수행법이 유입되고 무엇보다 주류 불교계의 지원/주도하에 불교 명상을 근간으로 한 서구의 심리치유/상담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수행체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3. 신도 감소

많은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 명상과 접목된 치유/상담 프로그램의 보급이 (잠재적) 불교 신자를 확보하고 침체한 교세를 회복시켜 줄 현대적 포교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명상포교’라는 개념도 널리 사용된다.

40) 「한국불교 제가자들, 신행 활동 안한다」, 『법보신문』, 2014.9.29.

41) 불교사회연구소,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 - 간화선을 중심으로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9), 7-8.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 명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간화선이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불교계에 넓게 퍼진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⁴²⁾ 한편 법회에 참여하는 신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을 찾는 신도를 대상으로 각종 법회 및 재의식, 상제례 봉행에서 의식과 설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포교방법은 기존 신도는 물론이고 불교를 이탈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직접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포교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응철은 이러한 현대적인 포교방법의 하나로 ‘수행포교’를 제시하고, 이 경우 수행법(명상수행) 자체보다 다른 학문(심리학)이나 문화 영역과 결합할 때 더 큰 포교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불교 수행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관 분야와의 결합과 응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유사한 맥락에서 김열권은 비불자 현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현대 학문 - 심리학, 뇌과학, 물리학, 생물학 등 - 의 시각과 해석에 바탕을 둔 (불교 전문용어가 배제된) 현대화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여기서 드는 의문은 불교 명상에 토대를 둔 그러나 불교적 색채가 배제되거나 희석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대중의 불교에 관한 관심을 환기해 이들 중 일부가 불교 신자로 새롭게 충원되는데 진정 기여할 것인가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명상 붐이 포교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템플스테이와 같이 일반 대중이 많이 이용하고 대외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가 자신의 추종자를 빠르

42) 인경, 『명상포교의 역할과 중단의 과제』; 송영숙, 『명상과 치유에 기반한 포교 활성화』,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2016), 608-611; 『일반인 위한 명상연구원 연례총서 “명상 보급이 최고의 포교”』, 『조선닷컴』, 2011.1.3.

43) 김응철,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 『불교평론』 42 (불교평론사, 2010),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불교평론』 79 (불교평론사, 2019), 551-53; 김종두, 『통합종단 50년의 3대사업과 사회운동』, 『불교학보』 6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198.

44) 김열권, 『초기불교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제1차 한국명상지도자포럼 발표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2019년 6월), 42.

게 있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일종의 구매자이며 소비자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필요성과 시간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 체험하고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 고객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불교계가 제공하는 여러 명상 프로그램 중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다면, 이들이 굳이 위계질서로 위인 권위적인 한국 불교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가 제공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하여도 이것이 자동으로 불교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불교는 여전히 제도종교이며 조직종교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불교계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종교색이 희석된 명상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은 조직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불교계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마음치유와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외연을 확장하여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영향력 있는 문화집단으로 그 존재가치를 담보 받던가, 아니면 내부로 시선을 돌려 믿음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여성) 재가 신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수행공동체를 개혁하여 지속적인 신도의 유입을 유도할 것인지.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두 길을 동시에 가는 것일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명상치유 프로그램 개발자는 종교성이나 종교적 언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자 하던지, 아니면 불교적 색채를 뚜렷이 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그러나 후에 신자로서 포섭될 수 있는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상이 소비문화와 결합하고 힐링 산업의 한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선 수행법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상담/심리치료 요법으로 고안된 이들 명상프로그램에서 종교적/불교적 정체성을 기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힐링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대다수 명상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 스트레스 감소, 업무 능력 향상, 자기개발, 마음의 평화 등 - 하에 개발된 것으로,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개인들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4. 불교와 심리치료의 경계 와해와 변화하는 종교지형도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주장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경제, 교육, 복지, 정치 등의 영역에 개입하여왔다. 그러나 동시대에 들어와 종교 고유의 영역이 대폭 축소됨과 동시에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의 다른 영역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연한 교리해석과 느슨한 멤버십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임상)심리학의 최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대중을 겨냥한 마음치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종교’ 너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마음치유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국불교와 상담/심리치료 분야와의 융합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이 한국의 종교지형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 시각을 전제로 하며 다분히 사변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불교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음치유 사업은 불교와 심리학의 경계가 서서히 약화하고, ‘불교의 심리치료화’ 혹은 ‘심리치료의 불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계가 추진하는 종교(불교)와 심리학(심리치료)의 융합은 ‘치유종교(therapeutic religion)’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동시대 중요한 종교문화적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종교(불교) 영역의 확장으로도, 심리학 영역의 확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이 둘을 아우르는 새로운 영역의 탄생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 종교는 물론이고 타 사회영역과 여전히 뚜렷한 경계를 가진 제도종교로써 한국불교가 이러한 타 영역(심리학, 심리치유/상담)과의 교류와 융합을 현재의 속도로 진행한다면 이는 제도종교로서 불교의 쇠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는 탈종교

화 현상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비종교인’ 혹은 ‘무종교인’의 급속한 증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어

우선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치유 사업의 운영 실태나 사업성을 분석 혹은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의 의도는 관련 현상을 보다 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에 대한 (불교)학계의 기존의 미시적이고 호교론적인 연구 경향 - 즉 개별 치유프로그램 분석이나 특정 불교사상/수행법의 치유적 성격에 관한 원론적 논의 등에 집중 - 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된 주요 인프라 - 전문교육기관, 연구소, 학회,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의 종류 등 - 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본론으로 종교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불교계가 마음치유 사업에 집중하게 된 불교 내·외적 제 요인을 정리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진행된 마음치유 사업이 한국불교의 조직구조와 신도 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의 마음치유 사업이 보여주는 불교와 심리치료의 융합이 여전히 제도종교이며 전통종교인 한국불교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불교계는 현재 치유/상담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개발, 명상과 그 효과에 대한 맹신, 지도자 양산 및 지도자 교육과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을 마주하고 있다. 다수의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 명상을 기반으로 한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가 힐링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무엇보다 현대적 포교방식으로 새롭게 신자들이 충원되어 약화된 교세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 불교계가 명상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적용과 그 효용성에 집중하여 종교색이 희석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현장에서 운영한다면 조직에 헌신하는 기존의 종교공동체

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신도를 확보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불교는 현재 신도들에게 수행종교로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반면, 템플스테이나 마음치유와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의 탈종교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촉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전통종교이며 제도종교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한국불교에게 해당 사업의 추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교계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불교,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의 융합, 마음치유 사업, 힐링 산업,
명상 시장

원고접수일: 2020년 5월 22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9일

참고문헌

- 김수미. 「한국 치유 문화 작동의 정치학- 신자유주의 통치 시기 주체 구성에 대한 일고찰」. 『언론과 사회』 22(1) (언론과 사회사, 2014): 114-161.
- 김열권. 「초기불교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제1차 한국명상지도자포럼 발표문, (사) 한국명상지도자협회, 2019년 6월.
- 김은준. 「포스트힐링시대 한국사회 성찰적 자기계발담론의 가능성 모색: 2013~2017년 언론분야 학술지 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87-134.
- 김응철.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불교평론』 79 (불교평론사, 2019), 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
- _____. 「포교와 신행, 구태를 벗어라」. 『불교평론』 42 (불교평론사, 2010),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
- 김이슬. 「한국 불교의 재가신도 활동 연구-서울 도심사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논문, 2019.
- 김종두. 「통합종단 50년의 3대사업과 사회운동」. 『불교학보』 6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185-209.
- 류한소. 「신자유주의적 위로, 치유문화」.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12): 206-213.
- 불교사회연구소.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 - 간화선을 중심으로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9.)
- 송영숙. 「명상과 치유에 기반한 포교 활성화」.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2016): 607-639.
- 안신정. 「불교 수행공동체의 변화」. 『불교와 사회』 10(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8): 61-106.
- 오원철. 「명상 붐의 국내외적 현황과 추이」. 『불교평론』 55 (불교평론사, 2013),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
- 윤승용.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던지는 의미와 과제」. 『신대승 e-Magazine』 8 (신대승네트워크 2017), <http://webzine.newbuddha.org/article/153>.
- _____. 「한국인의 종교, 30년(1984-2014)을 마무리 하고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No. 353 (2015).

- 윤영해.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 대형 도심포교당의 등장과 성공-」. 『불교연구』 26 (한국불교연구원, 2007): 175-05.
- 윤원철.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과 그 현대적 의미」. 『동양철학연구』 23 (동양철학연구회, 2000): 57-71.
- 이효원. 「불교 제3수행법의 대두」. 『신종교연구』 6 (한국신종교학회, 2002): 225-246.
- 인경. 「명상포교의 역할과 종단의 과제」. 『불교평론』 59 (불교평론사, 2014),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
- _____. 「명상 붐과 불교계의 대응」. 『불교평론』 55 (불교평론사, 2013),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
- 조기룡. 「현대도심포교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 대형도심사찰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14 (한국선학회, 2006): 241-273.
- 최준식.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평론』 18 (불교평론사, 2004),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
- Gaitanidis, Ioannis. “At the forefront of a ‘spiritual business’: independent professional spiritual therapists in Japan.” *Japan Forum* 23(2) (2011): 185 - 206.
- Joo, Ryan Bongseok. “Countercurrents from the West: ‘Blue-Eyed’ Zen Masters, Vipassana Meditation, and Buddhist Psychotherapy in Contemporary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9(3) (2011): 614-638.
- Metcalf, Franz Aubrey. “The Encounter of Buddhism and Psychology.” Charles S. Prebish and Martin Baumann, eds. *Westward Dharma: Buddhism beyond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348-364.
- Shimazono, Susumu. “From salvation to healing: Yoshimoto Naikan therapy and its religious origin.” C. Harding et al., eds. *Religion and Psychotherapy in Modern Japan*.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2015): 150-164.
- Woo, Hai-Ran. “New Age in South Korea.” *Journal of Alternative Spiritualities and New Age Studies* 5 (2009): 1-31.

Abstract

Current ‘Mind Healing’ Projects of South Korean Buddhism and the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Hairan Woo (Seoul National Univ.)

‘Healing’ has become a social topic of much importance in South Korea as the economic recession has continu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2000s. Meanwhile, job insecurity has increased, while the job market has become more competitive. As a result, the so-called ‘healing industry’ has expanded. What is unique is that South Korean Buddhism, a traditional religion, is very active in using alternative psychotherapies combined with Buddhist meditation for ‘mind(mental) healing’ proje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Buddhist project in a broad socio-cultural context, focusing on the background as well as the possible impacts of the project. Firstly, the main infrastructures are listed, South Korean Buddhism has established, to accomplish the ‘mind healing’ project: education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societies, certification systems for meditation teachers, etc. Secondly, various factors were mentioned that made South Korean Buddhism focused on the mind-healing business and the

possible impacts of such a massive project on the organizational/authority structure as well as the belief community of South Korean Buddhism. Lastly, what the convergence of religion(Buddhism) and psychotherapy implies, is discussed, such as a reducing or expanding role of 'religion'.

Key Words: Korean Buddhism, Fusion of Buddhist meditation and Psychotherapy, 'Mind Healing' project, Healing industry, Meditation market